

성격장애와 정서의 인식, 경험, 표현, 갈등 간의 관계

황순택[†] 조수덕 노은정 이숙희 이희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및 성격장애 군집과 관련된 정서의 인식, 경험, 표현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진단검사와 정서 인식, 경험, 표현, 그리고 양가감정 측정용 검사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과 변량분석 결과 개별 성격장애 및 군집별로 다른 정서 양상이 관찰되었다. A 군집은 정서 인식, 경험, 표현이 낮으면서 정서 표현 갈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분열성 성격장애에서 정서성의 위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B 군집은 A, C 군집보다 높은 정서 인식, 경험, 표현을 보였으며 정서 표현 갈등은 가장 낮게 나타나 B 군집의 높은 정서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기성 성격장애는 정서의 경험과 표현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내용은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10개 성격장애 중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성격장애임이 시사되었다. C 군집은 B 군집에 비해 낮은 정서 인식, 경험, 표현을 보였다. 다만, C 군집 중 강박성 성격장애에서는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정도가 다른 장애에 비해 크지 않으며,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특히 위축되어 있거나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장애, 정서인식,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적 갈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 Fax : 043-271-1713 / E-mail : hstpsy@chungbuk.ac.kr

정서는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PDs)의 정의와 진단에서 중요한 성분이다. 성격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정서적 고통과 정서통제의 어려움을 흔히 호소하며, 이런 점 때문에 성격장애의 치료에서 정서의 인내와 조절 능력이 강조되어 왔다(Clarkin, Yeomans, & Kernberg, 1999; Linehan, 1993; Young, 1994). 또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축 2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안, 우울 등 축 1의 정서관련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ertschy, 1992; Schiavone, Dorz, Conforti, Scarso & Borgherini, 2004; Skodol, Grilo, Pagano, Bender, Gunderson, Shea, Yen, Zanarini, & McGlashan, 2005). 이런 점에서 정서는 성격장애의 개념화와 진단, 임상양상의 기술, 치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는 모든 성격장애에서 중요한 역기능 영역에 해당된다. 부적응적 정서는 모든 성격장애에서 병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특징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성격장애들 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러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의 정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그리고 고유한 정서적 부적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은 몇몇 개별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분노와 충동성(Bland, Williams, Scharer, & Manning, 2004; Links, Eynan, Heisel, Barr, Korzekwa, McMain, & Ball, 2007; Lynch, Rosenthal, Kosson, Cheavens, Lejuez, & Blair, 2006; Tolpin, Gunthert, Cohen, & O'Neill, 2004),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정서지각 결함과 반응 억제 손상(Eisenbarth, Alpers, Segrè, Calogero, & Angrilli, 2008; Glass & Newman, 2006; Holmqvist, 2008; Kirsch, &

Becker, 2007; Marsh, & Blair, 2008), 분열형 성격장애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인식 결함(Berenbaum, Boden, Baker, Dizen, Thompson, & Abramowitz, 2006; Gurrera, Dickey, Niznikiewicz, Voglmaier, Shenton, & McCarley, 2005; Mikhailova, Vladimirova, Iznak, Tsusulkovskaya, & Sushko, 1996) 등이 빈번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성격장애들 간의 정서적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는 최근까지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DSM-IV의 10개 성격장애 및 3개 성격장애 군집과 정서의 관계를 비교한 Farmer, Nash, 그리고 Dance(2004)는 세 성격장애 군집에서 정서적 특징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군집 점수와 정서 측정치들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불안과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군집 C 성격장애(anxious-fearful PDs)는 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변덕스럽고, 정서적이고, 연극적인 면을 특징으로 하는 군집 B 성격장애(erratic-emotional-dramatic PDs)는 충동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불안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묘하고 괴팍한 면이 특징인 군집 A 성격장애(odd-eccentric PDs)는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군집 A와 군집 C의 정서패턴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격장애가 있는 정신과 환자들은 성격장애가 없는 정신과 환자들보다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 빈도와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C는 불쾌한 기분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회피성 성격장애에서 그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군집

A는 부정적 기분의 일부와 상관을 보였으며, 경계선 성격장애를 제외한 군집 B 성격장애는 불쾌한 기분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10개 성격장애 중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부정적 기분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불쾌감(unpleasant moods)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기분은 군집 C 성격장애의 중심적인 특징임이 시사되었다.

정서는 쾌-불쾌, 불안과 우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등 정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 경험과 표현, 정서의 안정성, 정서 조절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Linden(2006)은 정서적 역기능을 정서의 질 또는 지배적인 정서, 정서의 생성, 경험, 표현, 정서 조절에서의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격장애들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Linden이 제시한 첫 번째 집단은 특정한 정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즉, 정서내용의 장애를 보이는 성격장애로, 편집성(불신), 자기애적(우월성과 독특성), 강박성

(죄책감과 불안), 회피성(기능부전과 공포감), 의존성(기능부전과 불안) 성격장애가 여기에 속해있다. 두 번째 집단은 정서의 생성, 경험, 및 표현에서 장애를 보이는 성격장애로, 분열성(정서 결핍), 반사회성(공감과 정서반응의 결여) 성격장애가 해당된다. 특히 분열성 성격장애의 경우 정서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타인들은 이들을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집단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성격장애로, 경계성(불안정)과 연극성(부적절성, 정서표현의 증가) 성격장애, 그리고 충동성(정서통제의 불능, 과민성, 성급함) 성격장애(ICD-10;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가 여기에 분류된다(표 1).

자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또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그러나 흔히 성격장애가 있는

표 1.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정서의 장애

정서장애의 영역	성격 장애	정서장애의 내용
정서의 질과 지배적 정서의 장애	편집성	불신
	자기애적	우월성과 독특성
	강박성	죄책감과 불안
	회피성	기능부전과 공포감
	의존성	기능부전과 불안
정서 생성, 경험, 표현의 장애	분열성	정서의 결핍
	반사회성	공감과 정서반응의 결여
	충동성	정서통제 불능, 과민성, 성급함
정서조절의 장애	경계성	불안정성
	연극성	부적절성, 정서표현의 증가

Liden(2006)의 분류에 의거함.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서표현이 과도하거나 결핍되어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정서의 조절된 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는 등의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성격장애에서 정서의 인식과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성격장애의 이해에 중요한데 비해 성격장애와 정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성격장애들 간의 정서 인식과 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군집 및 개별 성격장애의 수준과 정서 인식,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경험, 정서 표현의 수준 및 내용, 정서 표현과 관련된 갈등 수준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정서의 이러한 측면에서 성격장애 변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격장애 군집 점수가 높은 사람들로 A, B, C 세 성격군집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과 비교집단 간 비교를 통해 각 성격군집의 정서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650명이 자료수집에 응하였다. 응답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36명의 자료를 제외한 61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289명(46.9%), 여자 325명(52.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6세(SD=2.02)였다.

측정도구

성격장애 진단검사

DSM-IV에 정의된 각 성격병리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편집성(14문항), 분열성(11문항), 분열형(12문항), 반사회성(19문항), 경계선(15문항), 연극성(14문항), 자기애(13문항), 회피성(11문항), 의존성(15문항), 강박성(13문항) 등 10개 척도 총 1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성격장애 척도의 총점으로 각 성격장애 점수를 산출하고, A, B, C 각 군집에 속하는 성격장애들의 점수의 합으로 성격장애 군집점수를 산출하였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

정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그리고 Palfai(1995)가 개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13문항, 이하 '정서 주의'), 그러한 느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11문항, 이하 '정서 인식'),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려는 정도(6문항)를 측정한다. 총 30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전적으로 동의 한다'(5)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번안판을 토대로 옥수정(20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주의와 인식을 측정하는 24문항이 사용되었다.

정서강도 척도

정서경험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rsen과 Diener(1987)가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번안한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 AIM)를 사용하였다. AIM은 6점 평정척도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검자가 자신의 보통 일상에 대한 반응의 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문항들은 신체적 반응, 주관적 경험과 같은 정서 반응의 여러 표현들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정서(19문항)와 부정적인 정서(11문항)를 측정하는데, 부정적인 정서에는 분노, 불안과 같은 불쾌 감정이 포함된다. 긍정적인 정서에는 행복감, 고양된 정서 등이 포함된다.

정서표현성 척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 또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ring, Smith, 및 Neale(1994)이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E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을 전혀 아니다(1)에서 항상 그렇다(6)까지의 6점 척도로 측정한다.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표현 질문지

정서표현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표현 질문지(Emotion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후 옥수정(20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7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4문

항, 친밀감 표현 측정의 5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의 7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11문항이 사용되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제작한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분노나 다른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의 두려움, 표현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성 정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1)부터 '매우 자주 그렇게 느낀다'(5)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격장애 군집과 정서 변인들 간 상관

성격장애 군집과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성격장애 군집별 상관관계를 보면, 군집 A와 C에서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군집 A $r=-.406, p<.001$; 군집 B $r=-.037, ns$; 군집 C $r=-.152, p<.001$. 이 결과는 군집 B

표 2. 성격장애 군집과 정서변인들 간 상관

성격장애	정서인식 (TMMS)	정서경험(AIM)			정서표현		
		긍정	부정	정서표현량 (EES)	정서표현내용(EEQ)		정서표현 갈등(AEQ)
		정서	정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군집 A	-.406***	-.082*	.286***	-.229***	-.175***	.123**	.435***
군집 B	-.037	.387***	.253***	.230***	.246***	.409***	.124***
군집 C	-.152***	.163***	.510***	-.060	-.030	.110**	.393***

* $p < .05$, ** $p < .01$, *** $p < .001$

주. TMMS: 특질상위기분척도, AIM: 정서강도 척도, EES: 정서표현성 척도, EEQ: 정서표현 질문지, AEQ: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의 경우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군집 A와 C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신의 정서에 대한 주의와 인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관의 크기로 볼 때 군집 C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비해 군집 A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경험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 긍정적 정서경험은 군집 A의 경우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군집 B와 C의 경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r = -.082, p < .05$; $r = .387, p < .001$; $r = .163, p < .001$. 군집 A와 C에서 상관의 크기가 미미하여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겠으나 군집 B의 경우 장애가 뚜렷할수록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군집 B 성격장애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노, 불안, 불쾌감 등의 부정적 정서경험은 A, B, C 세 군집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r = .286, p < .001$; $r = .253, p < .001$; $r = .510, p < .001$. 이 결과는 군집 A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의 강도가 강하며, 군집 B와 C의 경우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 양쪽 다 보다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긍정적 정서경험은 군집 B 성격장애의 정도와의 상관이 가장 뚜렷하고 있고 부정적 정서경험은 군집 C 성격장애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표현의 정도는 군집 A 성격장애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군집 B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군집 C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r = -.229, p < .001$; $r = .230, p < .001$; $r = -.060, ns$. 이 결과는 군집 A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표현이 제한되어 있으며, 군집 B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표현이 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의 내용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군집 A 성격장애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군집 B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군집 C와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었다, 각각 $r = -.175, p < .001$; $r = .246, p < .001$;

$r=-.030$, m .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A, B, C 세 성격장애 군집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r=.123$, $p<.001$; $r=.409$, $p<.001$; $r=.110$, $p<.001$. 이 결과는 군집 A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긍정적 정서표현은 부족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증가하고, 군집 B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양쪽 다 증가하며, 군집 C의 경우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은 증가하고, 긍정적 정서표현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 성격장애 군집 중 군집 B에서 긍정적인 내용이건 부정적인 내용이건 정서표현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A, B, C 성격장애 모두에서 성격장애의 정도와 정서표현의 갈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435$, $p<.001$; $r=.124$, $p<.01$; $r=.393$, $p<.001$. 이 결과는 어떤 유형이건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표현과 관련된 갈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군집 A와 C에서 심하며, 군집 B의 경우 상대적으로 갈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성격장애와 정서변인 간 상관

각 성격장애 군집 내에서 구체적으로 개별 성격장애와 정서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군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상관분석 결과 정서인식의 경우 DSM-IV의 10개 성격장애 중 연극성과 자기애적 성격장애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각 $r=.242$, $p<.001$; $r=.119$, $p<.01$, 이 두 장애와 강박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애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분열성 $r=-.453$,

$p<.001$; 편집성 $r=-.307$, $p<.001$; 회피성 $r=-.283$, $p<.001$; 분열형 $r=-.270$, $p<.001$; 의존성 $r=-.236$, $p<.001$; 반사회성 $r=-.208$, $p<.001$; 경계선 $r=-.163$, $p<.001$. 이 결과는 연극성 또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인식이 활발하며, 분열성, 편집성, 회피성, 분열형, 의존성, 반사회성, 경계선 등의 성격장애가 심할수록 정서인식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경험을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극성, 자기애적, 경계선 등 군집 B에 속하는 대부분의 성격장애는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각각 $r=.532$, $p<.001$; $r=.438$, $p<.001$; $r=.236$, $p<.001$, 그밖에, 분열형, 강박성, 의존성 성격장애도 긍정적 정서경험과 강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각각 $r=.124$, $p<.01$; $r=.106$, $p<.05$; $r=.101$, $p<.05$. 그러나 분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의 경우 긍정적 정서경험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347$, $p<.001$; $r=-.184$, $p<.001$. 이 결과는 반사회성을 제외한 군집 B 성격장애가 뚜렷할수록 긍정적 정서가 풍부하며, 또한, 앞서 군집별 분석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군집 A, 군집 C와 긍정적 정서경험 간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이 특히 분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에서의 긍정적 정서경험의 폭이 좁거나 강도가 약한 점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부정적 정서경험은 의존성 성격장애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488$, $p<.001$, 그밖에도 회피성, 경계선, 분열형, 편집성, 연극성, 강박성, 자기애적, 분열성 등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r=.414$, $p<.001$; $r=.345$, $p<.001$; $r=.304$, $p<.001$; $r=.289$,

표 3. 성격장애와 정서변인들 간 상관

성격장애	정서인식 (TMMS)	정서경험(AIM)		정서표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정서표현량 (EES)	정서표현내용(EEQ)		정서표현 갈등(AEQ)
					긍정정서	부정정서	
편집성	-.307***	-.028	.289***	-.246***	-.145***	.112**	.406***
분열성	-.453***	-.347***	.100*	-.301***	-.352***	-.017	.284***
분열형	-.270***	.124**	.304***	-.051	.024	.191***	.388***
반사회성	-.208***	.047	-.004	.037	.008	.245***	.089*
경계선	-.163***	.236***	.345***	.089*	.155***	.357***	.255***
연극성	.242***	.532***	.248***	.436***	.391***	.374***	-.077
자기애적	.119**	.438***	.188***	.183***	.245***	.242***	.105**
회피성	-.283***	-.184***	.414***	-.221***	-.241***	-.029	.320***
의존성	-.236***	.101*	.488***	-.024	.004	.093*	.407***
강박성	.034	.106*	.226***	-.077	-.065	-.004	.179***

* $p < .05$, ** $p < .01$, *** $p < .001$

주. TMMS: 특질상위기분척도, AIM: 정서강도 척도, EES: 정서표현성 척도, EEQ: 정서표현 질문지, AEQ: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p < .001$; $r = .248$, $p < .001$; $r = .226$, $p < .001$; $r = .188$, $p < .001$; $r = .100$, $p < .05$. 이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반사회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가 뚜렷할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의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경향은 연극성 성격장애와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r = .436$, $p < .001$, 그밖에도 자기애, 경계선 등 군집 B에 속하는 성격장애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r = .183$, $p < .001$; $r = .089$, $p < .05$. 이에 비해 분열성, 편집성, 회피성 성격장애의 수준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r = -.301$, $p < .001$; $r = -.246$, $p < .001$; $r = -.22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연극성, 자기애, 경계선 성격장애가 뚜렷할수록 정서표현이 활발하고, 분열성, 편집성, 회피성 성격장애가 뚜렷할수록 정서표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의 내용은 긍정적 정서의 경우 연극성, 자기애적, 경계선 성격장애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각각 $r = .391$, $p < .001$; $r = .245$, $p < .001$; $r = .155$, $p < .001$, 분열성, 회피성, 편집성 성격장애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각각 $r = -.352$, $p < .001$; $r = -.241$, $p < .001$; $r = -.145$, $p < .001$. 이 결과는 반사회성을 제외한 군집 B의 성격장애가 뚜렷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곧잘 표현하며, 분열형,

회피성, 편집성 성격장애가 뚜렷할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회피성, 분열성, 강박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연극성, 경계선, 반사회성, 자기애, 분열형, 편집성, 의존성 성격장애 각각 $r=.374, p<.001$; $r=.357, p<.001$; $r=.245, p<.001$; $r=.242, p<.001$; $r=.191, p<.001$; $r=.112, p<.01$; $r=.093, p<.05$.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장애가 심할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피성, 분열성, 강박성 성격장애의 경우 장애가 심한 정도와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정도 간에는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군집 B의 연극성, 자기애적, 경계선 세 성격장애의 경우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정서표현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성을 제외한 9개 성격장애 모두에서 장애의 수준과 정서표현 관련 갈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편집성 $r=.406, p<.001$; 의존성 $r=.407, p<.001$; 분열형 $r=.388, p<.001$; 회피성 $r=.320, p<.001$; 분열성 $r=.284, p<.001$; 경계선 $r=.255, p<.001$; 강박성 $r=.179, p<.001$; 자기애 $r=.105, p<.01$; 반사회성 $r=.089, p<.05$.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이 풍부하고 활발한 연극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표현과 관련된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특히 군집 A에 속하는 편집성과 분열형, 군집 C에 속하는 의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에서 이러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A, B, C 세 성격군집 집단 간의 정서 양상 비교

자신의 정서를 인식, 경험, 표현하는데 있어서 세 성격장애 군집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각 성격장애 점수분포에서 상위 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성격군집 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집단구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10개 성격장애 점수 각각을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 분포로 환산한 뒤 각 성격장애 점수분포의 상위 10%인 T점수 63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는 사람을 성

표 4. 세 성격군집 집단의 성격장애 T 점수

성격군집	N(남/여)	평균 (SD)
A 군집	41 (22/19)	
편집성	16 (7/9)	65.47 (3.29)
분열성	20 (12/8)	68.58 (3.95)
분열형	19 (9/10)	65.67 (2.19)
B 군집	82 (38/44)	
반사회성	22 (16/6)	67.30 (2.85)
경계선	21 (9/12)	66.69 (3.29)
연극성	36 (9/27)	67.48 (4.52)
자기애적	34 (14/20)	67.81 (3.32)
C 군집	53 (19/34)	
회피성	25 (7/18)	67.20 (3.25)
의존성	17 (6/11)	70.80 (6.80)
강박성	25 (10/15)	67.34 (2.77)
합계	176 (79/97)	-
비교집단	24(16/7)	38.29(6.32)

주. 같은 군집에 속해있는 둘 이상의 장애에 중복 분류되는 사례 때문에 군집 사례의 수는 군집 내 개별 장애 사례수 합보다 적음.

격군집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T 점수 상위 집단의 성격장애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별 성격장애와 세 군집으로 나눠서 제시하였다 (표 4). 군집이 다른 둘 이상의 성격장애 점수가 높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군집에 속하는 둘 이상의 개별 성격장애 점수가 높은 경우는 사례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총 176명이 분석되었다. 비교집단은 성격장애 진단검사 점수의 T 분포에서 10개의 모든 하위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별하였으며, 24명이 이 기준에 해당되었다.

세 성격군집 집단간 정서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서인식(TMMS), 정서경험

(AIM), 정서표현(EES, EEQ, AEQ)의 수준을 종속변인, 세 성격군집 집단과 비교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Dunnett T3)을 실시하였다. 성격군집 집단이 보이는 정서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는 세 군집의 정서변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 군집 집단의 정서변인들을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T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서인식(TMMS)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F_{(3, 196)} = 11.34, p < .001$, 사후검증 결과 군집 A에 비해 군집 B, C와 비교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고, 군집 C에 비해 비교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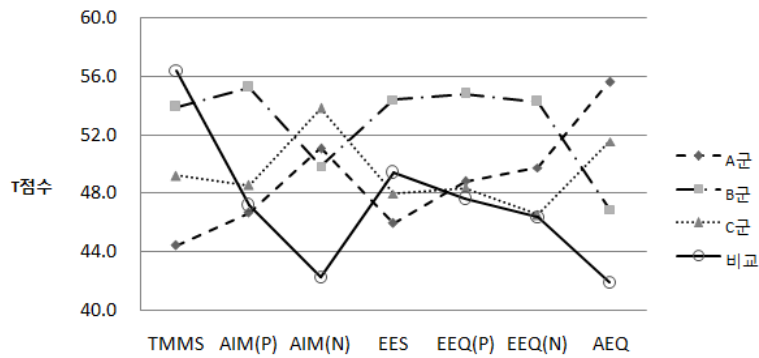
표 5. 세 성격군집 집단간 정서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성격 군집	정서인식 (TMMS)	정서경험 (AIM)		정서표현			
				정서 표현성 (EES)	정서표현내용 (EEQ)		정서표현 갈등 (AEQ)
		긍정정서	부정정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A 군집	3.14 (.26)	3.65 (.39)	3.66 (.52)	3.32 (.62)	4.23 (.78)	3.71 (.86)	3.10 (.42)
B 군집	3.49 (.42)	4.12 (.62)	3.59 (.55)	3.92 (.67)	4.75 (.89)	4.17 (1.05)	2.59 (.66)
C 군집	3.32 (.37)	3.75 (.42)	3.82 (.52)	3.47 (.71)	4.19 (.75)	3.37 (.81)	2.86 (.58)
비교집단	3.59 (.30)	3.68 (.55)	3.16 (.43)	3.57 (.64)	4.12 (.91)	3.36 (.76)	2.30 (.48)
F	11.34***	10.86***	8.92***	9.29***	7.49***	10.09***	12.61***
Dunnett T3	1<2, 3, 4 3<4	1, 3, 4<2	4<1, 2, 3	1,3<2	1, 3, 4<2	3, 4<2	2, 4<1 4<3

*** $p < .001$

주) 셀 내의 점수는 각 검사의 총점을 검사 문항수로 나눈 문항 평균 평정값임.

TMMS: 특질상위기분척도, AIM: 정서강도 척도, EES: 정서표현성 척도, EEQ: 정서표현 질문지, AEQ: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TMMS와 AEQ는 5점척도, AIM과 EES는 6점척도, EEQ는 7점척도 임.



정서변인

그림 1. 세 성격군집 집단의 정서 인식, 경험, 표현의 양상

주. TMMS: 특질상위기분척도, AIM(P): 정서강도 척도의 긍정적인 정서경험, AIM(N): 정서강도 척도의 부정적인 정서경험, EES: 정서표현성 척도, EEQ(P): 정서표현 질문지의 긍정정서표현, EEQ(N): 정서표현 질문지의 부정 정서표현, AEQ: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다. 이 결과는 군집 A에서 정서인식이 가장 위축되어 있으며, 비교집단의 정서인식이 가장 활발함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경험의 강도(AIM-긍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_{(3, 196)} = 10.86, p < .001$, 사후검증 결과 군집 B는 군집 A, C, 및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군집 B 집단이 군집 A, C 및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경험 강도(AIM-부정)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F_{(3, 196)} = 8.92, p < .001$, 사후검증 결과 세 군집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경험의 강도가 유의미하게 강하였으며, 세 군집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표현성(EES)에서 유의미한 집단차가 있었다, $F_{(3, 196)} = 9.29, p < .001$. 사후검증 결과 군집 B는 군집 A, C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군집 A, C, 그리고 비교집단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군집 B가 다른 군집에 비해 정서표현이 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의 내용(긍정적-부정적)에서도 정서표현성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서 집단 간 전면적인 차이는 유의미하였고, $F_{(3, 196)} = 7.49, p < .001$; $F_{(3, 196)} = 10.09, p < .001$, 사후검증 결과 긍정적 정서의 표현에서는 군집 B가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정정서표현에서는 군집 B가 군집 C와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군집 B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표현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갈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_{(3, 196)} = 12.61, p < .001$, 사후검증 결과 이전 변인과는 반대로 군집 A가 군집 B와 비교집단에 비해, 그리고 군집 C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군집 A와 C가 정서표현의 어려움이 보다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DSM-IV의 성격장애 군집 및 개별 성격장애와 관련된 정서인식, 경험, 표현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진단검사와 정서의 여러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실시하고 성격장애 변인과 정서변인들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성격장애의 세 군집 및 10개 성격장애와 정서의 여러 양상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군집 A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인식은 빈곤하고, 정서경험은 부정적이고, 정서표현은 제한되어 있고, 정서표현의 내용은 부정적이며, 정서표현과 관련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군집 A 성격장애가 전반적으로 제한된 정서성, 부정적인 정서경험 및 표현, 그리고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군집 A의 개별 성격장애 수준에서 볼 때, 편집성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신의 정서에 잘 주의하지 못하고,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정서를 경험하며, 정서표현은 제한되어 있고, 경험한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편집성 성격장애와 유사하지만 정서의 인식이 더욱 더 제한되어 있고, 긍정적 정서경험과 표현의 결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경험한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열형 성격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인식의 제한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경험이 뚜렷하고, 경험한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B 성격장애의 경우 다른 군집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풍부하고, 정서표현이 활발하고, 정서표현의 내용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B의 네 성격장애 중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정서의 인식은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정서경험의 제한은 없으며, 표현되는 정서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고, 정서표현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의 인식이 다소 제한되어 있지만 정서경험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경험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표현의 내용은 부정적이며, 군집 B의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정서표현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군집 A, 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정서의 경험과 표현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내용은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10개 성격장애 중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성격장애였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연극성 성격장애와 매우 유사한 정서 패턴을 보였지만 정서경험과 표현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고 다양성의 폭이 다소 좁은 편이었다. 그러나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서는 정서의 경험과 표현이 풍부하고 다양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군집 C의 경우 정서의 인식에 제한이 있고, 정서경험의 내용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더 뚜렷하며, 정서의 표현과 관련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정서의 인식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긍정적인 정서경험은 다소 제한되어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흔히 경험하지만, 정서의 표현은 제한되어 있고 정서표현의 어려움이 큰 것이 특징이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정서패턴이 회피성 성격장애와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정서표현의 제한이 없지만 정서표현의 어려움이 심한 것이 특징이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정서의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정도가 다른 장애에 비해 크지 않으며,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특히 위축되어 있거나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인식은 정서 경험 및 표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에 해당된다.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유기체가 경험의 인식을 부인’하는, 그리고 ‘경험과 자기구조가 불일치’하는 상태로, 이는 곧 심리적 부적응을 의미한다(Raskin & Rogers, 2000). 특히 연극성, 자기애성, 강박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장애의 수준과 정서인식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인식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괴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A, B, C 세 군집 모두 부정적인 정서 경험 및 표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반사회성을 제외한 9개 성격장애에서 장애의 수준과 부정적 정서경험 간, 그리고 분열성, 회피성, 강박성을 제외한 7개 성격장애에서 장애의 수준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정적 정서가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Costa, McCrae, & Siegler, 1999; Farmer & Nelson-Gray, 1995; Widiger, Trull, Clarkin, Sanderson & Cosra, 2002)을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군집 A와 C의 경우 긍정적 정서경험 및 표현과는 부적 상관이 있어 이들의 정서가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가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고 결국 정서의 폭이 위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분열성, 회피성, 그리고 편집성 성격장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 정서표현성 척도(EES)로 측정된 정서표현의 총량에서도 이 세 성격장애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불안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기분이 보편적이며, 특질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은 군집 C 성격장애의 특징임을 밝히고 있다(Farmer & Nelson-Gray, 1995; Svrakic, Przybeck, Whitehead, & Cloninger, 1999; Watson,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군집 C 뿐 아니라 군집 A도 이와 유사한 정서적인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군집 B, 특히 경계선, 연극성,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경우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 성격장애에서 정서 경험과 표현의 폭이 넓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 정서표현성 척도(EES)로 측정된 정서표현의 총량에서도 군집 B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 B 성격장애의 ‘극적이고 정서적인(dramatic-emotional)’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군집 B에서의 높은 정서적 반응성을 보고하고 있다(Coid, 1999; Levin, Marziali, & Hood, 1997; Linehan, 1993; Western, 1998).

한편,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EQ)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의 두려움, 표현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성 정도 등 정서표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King & Emmons, 1990)을 측정하였는데, 분

석 결과 A, B, C 세 군집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이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개별 성격장애 수준에서도 연극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에서 장애의 정도와 갈등 수준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King & Emmons, 1990; Emmons & Colby, 1995). 이런 점에서 정서표현과 관련된 양가감정은 성격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부적응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겠다. 다만, 군집 B 장애의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를 제외하면 상관의 크기가 크지 않고 연극성 성격장애의 경우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군집 B의 세 성격장애에서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격장애 변인에서 극단점수를 얻은 사례들로 범주적 집단(성격 군집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간 정서 양상을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앞서의 상관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정서인식, 경험, 표현, 갈등의 프로파일(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정서인식이 제한된 군집 A는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 또는 갈등이 심하고, 정서인식이 풍부한 군집 B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서 경험과 표현의 측면에서 군집 A와 C는 서로 매우 유사하고 군집 B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집 A와 C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많으며, 정서표현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둘 다 위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군집 B는 정서 경험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에 비

해 긍정적 정서가 우세하고, 정서표현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둘 다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 군집들 간의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내향성/외향성 차원으로 군집 A, C와 군집 B를 구분할 수 있으며, 내향성/외향성 차원은 또한 긍정적인 정서의 낮음/높음과도 각각 관련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윤훈, 황순택, 이숙희, 2008; Farmer & Nelson-Gray, 1995; O'Connor & Dyce, 1998; Watson, 2000; Widiger et al., 2002)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외향성과 긍정적인 기분 간의 연결 관계는 외향성 특유의 사교성의 산물일 수 있다(Costa & McCrae, 1980; Emmons, & Diener, 1986).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를 '진단'이 아닌 일종의 특질 또는 차원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변인과 여러 정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많은 성격장애 연구에서 '성격장애'를 차원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예를 들어, Bagby, Marshall, & Georgiades, 2005). 다만, 성격장애 차원의 극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 임상집단이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의 크기가 실제에 비해 축소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임상집단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성격장애와 정서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가 일반 성인이 아닌 대학생 집단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변인군 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집단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73-288.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징과 정서조절 전략. *서울대 문학석사 학위 논문*.
- 윤훈, 황순택, 이숙희 (2008).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777-787.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 논문*.
- Glass, S. J., & Newman, J. P. (2006). Recognition of facial affect in psychopathic offen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815-20.
- Bagby, R. M., Marshall, M. B., & Georgiades, S. M. (2005). Dimensional personality traits and the prediction of DSM-IV personality disorder symptom counts in a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 57-67.
- Berenbaum, H., Boden, M. T., Baker, J. P., Dizen, M., Thompson, R. J., & Abramowitz, A. (2006). Emotional correlates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Abnormal Psychology*, 115, 359-68.
- Bertschy, G. (1992). Relations between mood disorders and personality. *L'Encéphale*, 18, 187-92.
- Bland, A. R., Williams, C. A., Scharer, W. & Manning, S. (2004).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5, 655-672.
- Clarkin, J. F, Yeomans, F. E. & Kernberg O. F. (1999).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New York: Wiley.
- Coid, J. W. (1999). An affective syndrome in psychopath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641-650.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osta, P. T. Jr, McCrae, R. R., & Siegler, I. C. (1999).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adult life cycle: personality and personality disorders. In: Cloninger CR(ed).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29-154.
- Eisenbarth, H., Alpers, G. W., Segrè, D., Calogero, A., & Angrilli, A. (2008).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emotional faces in psychopathic women. *Psychiatry Research*, 159, 189-95.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0, 1211-1215.
- Farmer, R. F. & Nelson-Gray, R. O. (1995). Anxiety, impulsivity, and the anxious-fearful and erratic-dramatic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89-207.
- Farmer, R. F., Nash, H. M. & Dance, D. (2004). Mood patterns and variation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disorder pathology. *Comprehensive psychiatry*, 45, 289-303.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urrera, R. J., Dickey, C. C., Niznikiewicz, M. A., Voglmaier, M. M., Shenton, M. E., & McCarley, R. W. (2005). The five-factor model in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Schizophrenia Research*, 80, 243-51.
- Holmqvist, R. (2008). Psychopathy and affect consciousness in young crimin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209-24.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rsch, L. G., & Becker, J. V. (2007). Emotional deficits in psychopathy and sexual sadism: implications for violent and sadistic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904-22.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arsen, R.,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evine, D., & Marziali, E. (1997). Hood J.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 185, 240-246.
- Linden, M. (2006). Minimal emotional dysfunctions (MED) in personality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21, 325-332.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New York: Wiley.
- Links, P.S., Eynan, R., Heisel, M. J., Barr, A., Korzekwa, M., McMair, S., & Ball, J. S. (2007). Affective instability and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 72-86.
- Lynch, T. R., Rosenthal, M. Z., Kosson, D. S., Cheavens, J. S., Lejuez, C. W. & Blair, R. J. (2006). Heightened sensitivity to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motion*, 6, 647-655.
- Marsh, A. A., & Blair, R. J. (2008). Deficits in facial affect recognition among antisocial populations: a meta-analysi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2, 454-65.
- Mikhailova, E. S, Vladimirova, T. V., Iznak, A. F., Tsusulkovskaya, E. J., Sushko, N. V. (1996). Abnormal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 of emotions in depressed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disorder and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40, 697-705.
- O'Connor, B. P., & Dyce, J. A. (1998). A test of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configur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3-16.
- Raskin, N. J. & Rogers, C. R. (2000).

- Person-centered therapy. In (ed.) R. J. Corsini & D. Wedding (2000), *Current Psychotherapies*. Peacock Publisher. (김정희 역, 2004, 학지사).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s,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Pennebaker, J. W.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125-154). Washington, DC: APA.
- Schiavone, P., Dorz, S., Conforti, D., Scarso, C. & Borgherini, G. (2004). Comorbidity of DSM-IV Personality Disorders in unipolar and bipolar affective disorders: a comparative study. *Psychological reports*, 95, 121-128.
- Skodol, A. E., Grilo, C. M., Pagano, M. E., Bender, D. S., Gunderson, J. G., Shea, M. T., Yen, S., Zanarini, M. C., & McGlashan, T. H. (2005). Effects of personality disorders on functioning and well-being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 11, 363-368.
- Svrakic, D. M., Przybeck, T. R., Whitehead, C. & Cloninger, C. R. (1999). Emotional traits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Cloninger CR(ed).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Tolpin, L. H., Gunthert, K. C., Cohen, L. H., & O'Neill, S. C. (2004).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instability of daily negative affect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72, 111-137.
- Watson, D. (2000). *Mood and Temperament*. New York, NY: Guilford.
- Westen, D. (1998). Affect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applications to depress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Flack WF Jr, Laird JD (eds). *Emotion and Psychopatholog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idiger, T. A., Trull, T. J., Clarkin, J. F., Sanderson, C., & Costa, P. T. Jr. (2002). A description of the DSM-VI personality disorders with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Costa PT Jr, Widiger TA(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ICD-10*.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ss Office.
- Young, J. E. (1994).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 A Schema Focused Approach*. Rev. Ed.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원 고 접수일 : 2008. 7. 16.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13.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5.
게재결정일 : 2009. 1. 18.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Disorders and Emotions

Soon-Taeg Hwang Soodeog Cho Eun-Jung Noh Suk Hee Lee Hehwa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various aspects of emotions in ten Personality Disorders(PDs) and three Clusters of PDs. 614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Diagnostic Test of Personality Disorders,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Affect Intensity Measure,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the Emotion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nd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revealed different emotional features among the 11 PDs and among the 3 PD Clusters.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 A Among the 3 Clusters were lower levels of recognition, experience, expression of emotion and higher levels of conflict in the expression of emotion. Emotional restrictions were very high in the Schizoid PD. Cluster B revealed higher levels of recognition, experience, expression of emotion and few conflict in the expression of emotion. This showed the plentiful emotionality of the Cluster B PDs. These features were obvious in the Histrionic PD. The Histrionic PD was the only PD experiencing no difficulties in expression of emotion. Compared to Cluster B, Cluster C had lower levels of recognitions, experiences, and expressions of emotion. But the Obsessive-Compulsive PD had no restriction of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emotion and no difficulties in emotional expression.

Key words : Personality Disorder, recognition of emotion, experience of emotion, expression of emotion, emotional conflict.